



낙화.

봄꽃이야기.

오방색의 가치, 작품으로 재현하다

힐링 아티스트 황상 개인전 내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 8~13일 '황상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13번째 개인전이다. 2015 Joy-Route 전속작가 초대전(갤러리 신상, 서울)의 4회 초대전과 부스전, 아! 대한민국전(갤러리 미술세계, 서울) 등을 비롯한 160여회의 단체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국제현대미술협회, 밀알회, 원목회의 회원과 아시아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미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전통 한지의 특성을 연구하고, 정신성 구현을 위한 오방색의 가치를 작품으로 재현하였다. 두툼한 한지를 토막 또는 문양을 내어 조형미를 구현하고 그 사이에 오방색 면사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냈다. 혼

합재료로 소재표현이 끝나면 이후 전통한지를 전통호재로 풀 먹여 덧붙이는 중첩과정을 통해 비단결 같은 바탕결을 이루었고, 수천 년 향토적 민족정서를 품은 꽃신과 왕 소나무 같은 주변 애깃거리들을 소재로 삼았다. 또한 유럽 여행에서 받은 감동을 작품에 담아 표현하였다. 황상오 작가는 매우 독특한 구도법, 묘사법을 가진 화풍으로의 또 다른 변신을 시도했다. 그것은 작품 화면의 구도에서 인위적인 세 단계 혹은 세 시점의 설정, 묘사방식에서 파피에 콜레와 그리기의 혼용, 그리고 표현 소재에 있어서는 작가의 경험에서 나온 이미지와 전통문화 등 요소들의 도입에 있다. 우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구도이다. 작가는 마치 작품 속에서 관람자가 창문을 열자 바람에 날아가는 이미지의 흰색 한지

를 관통하여 밖을 내다보는 것처럼 화면의 전경으로부터 후경으로 이동해가면서 각기 다른 시·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전경의 현재로부터 중경과 원경으로의 이동에서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즉 현시적 시·공간으로부터 경과된 시·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말한다. 원경으로 설정한 중경의 여백에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특별하게 경험했던 것들의 형상들이 나열되어 있다. 오래전에 겪었던 여객선 사고의 슬픔을 상징하는 고무신과 요즘 해외여행 중에 감동을 느꼈던 유럽의 양귀비, 꽃밭, 붓꽃, 들꽃 등의 사실적인 이미지가 화면의 배경에 등장한다. 그런데 형상들을 보면 작가가 특정한 부분들을 클로즈업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 속의 자연스러운 자태로 보긴 어렵다. 그는 사실주의 화가로 출발했기에 그 꽃들의 자태는 작가의 의도가 가미된 사실적인 형태로 각색되어 있는 것이다. /김진성 기자

한국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 대상 '도시의 얼굴들' 선정

'2019 고창한국지역도서전 조직위원회'는 '제3회 한국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 대상으로 경상대 지앤유 출판사의 '도시의 얼굴들(허정도)'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의 얼굴들'은 마산이라는 도시를 거처간 왕, 문학인, 정치가, 운동가, 성직자 등의 행적을 통해 삶의 장소성과 도시재생의 스토리텔링 가능성을 담담하게 풀어낸 건축가의 도시 이야기이다. 심사위원장 고재중 시인은 "자료조사의 충실성을 확보한 유려한 글쓰기로 독자들이 서정적 도시기행을 가능케 했다"며 "지역적 특성, 기획력, 대중성을 갖춘 수작이어서 대상으로 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평했다. 공로상에는 제주 한그루출판사의 '청정거리자라 돌비돌비 거러지라(김정희)'와 광주 전라도닷컴의 '스무 살 도량자(김담연)'가 선정됐다. 한국지역출판연대가 매년 한국지역도서전을 통해 선정하는 천인독자상은 1000명의 독자가 마음과 상금을 모아 지역의 좋은 출판물을 격려하는 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은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접수한 전국 지역 책 39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모인 7명의 심사위원이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저작물을 우선으로, 참신한 기획력과 건강한 대중성을 확보한 작품을 선정해 오고 있다. 제3회 한국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 시상식은 '2019 고창한국지역도서전' 기간 중 11일 고창 책마루 해리 책숲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창한국지역도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arrybook.kr)를 참고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누에타운, 전문기획전 '바다. 하늘을 날다!' 개최

제7회 부안마실축제에 맞아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에서 제11회 전문기획전 '바다. 하늘을 날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에 서식하는 허귀 나비로 바다와 같이 푸르게 빛나는 날개를 가진 몰포나비(Morpho Butterfly)를 감상할 수 있다. 몰포(Morpho)는 '변한다', '바뀐다'의 뜻으로 보는 방향에 따라 나비의 색깔과 광택이 다르게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전시를 이끄는 부안누에타운 손민우 박사는 몰포나비 날개 속에 숨어있는 남아메리카 바다(태평양)와 고대 잉카문명의 문양을 60mm와 105mm 점사렌즈(Macro lens)로 담아냈다.

몰포나비는 네발나비과에 속하는 대형나비로 크기가 100mm에 이른다. 실제 푸른색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날개의 구조에서 빛의 간섭으로 색깔을 만들어내는 구조색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곤충이기도 하다. 문숙자 부안군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전문기획전은 우리나라에서 평소 접하지 못했던 몰포나비 20종의 액자를 추척할까지 전시할 계획"이라며 "가족과 함께 부안누에타운에 방문해 좋은 추억을 쌓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누에타운은 국가농업중요유산으로 등록된 167년 전통의 유유마을(부안군 변신면 마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누에타운 ☎ 063-580-4334·4082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가정의 달 맞이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전예약 가능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복합문화프로그램 '꽃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9회의 체험프로그램과 전시로 구성된다. 전북의 미술가와 협업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예술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체험프로그램은 한국화가 이희춘의 조각을

모티브로 조각관에 체험자가 직접 채색해 완성하는 '꿈속의 정원' 프로그램과 한국화가 송영란과 함께 종이꽃에 사랑과 감사의 내용을 그리는 '봄 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통해 1일 50명까지 체험할 수 있으며 매주 토·일(완주 프로젝트 축제 기간 24일은 체험 가능)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몽유화원(夢遊花園)展'은 한국화가 이희춘의 꽃 형태의 입체 작품을 전시하며 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바람부는 날은 잠미동(藏米洞)에 간다)展과 (전북청년 2019)展이 진행된다. 또한, 매주 토·일 오후 1시, 3시에 온 가족을 위한 애니메이션 상영과 주말체험 프로그램 (꽃다발 카드 만들기)가 매주 토요일 1시부터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http://www.j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